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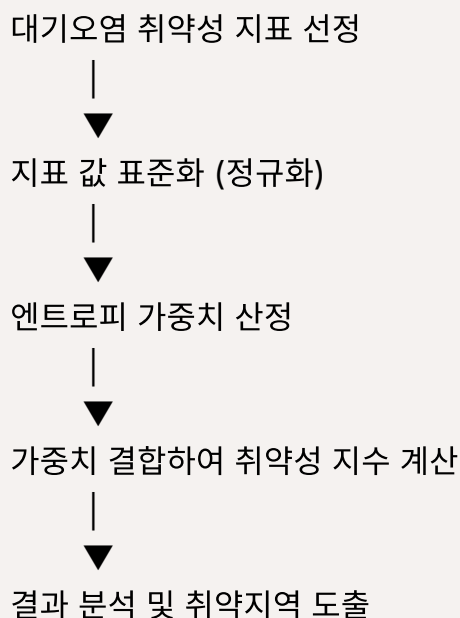
엔트로피 가중치를 활용한 대기오염 취약성 평가—오존을 중심으로

<https://www.kci.go.kr/kciportal/ci/sereArticleSearch/ciSereArtiView.kci?sereArticleSearchBean.artid=ART002054964>

1) 아이디어

- 대기오염 취약성 평가에서 지표 선택뿐 아니라 지표별 가중치 결정이 중요함.
- 본 연구는 전국 24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, 오존 중심의 대기오염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엔트로피 가중치 산정법을 적용함.
- 엔트로피 가중치를 활용하면 자료 기반으로 객관적인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할 수 있어, 정책적 분석에 활용가치가 높음

2) 모델 구조



- **지표 표준화:** 서로 단위가 다른 변수들을 비교 가능하게 정규화 처리
- **엔트로피 가중치 산정:** 각 지표의 정보량을 기반으로 가중치 계산

- **취약성 지수 계산:** 지표 값 × 가중치 합산으로 지역별 취약성 평가
-

3) 데이터 및 결과

입력/출력 데이터

- **입력(X)**
 - 노출 지표: 기상 요인 및 대기오염 요인
 - 민감도 지표: 취약대상(연령·건강), 취약환경요인
 - 적응능력 지표: 사회·경제적 요소, 보건의료 요인, 대기관리 요인
 - 총 249개 시군구 단위의 지역별 지표값
- **출력(Y)**
 - 지역별 **대기오염 취약성 지수** (오존 중심)